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0 한광대학교병원 5층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7월 7일 목요일 (음 6월 4일)

제159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김승수 전주시장은 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선6기 전주시의 지난 2년은 오랫동안 묵은 지역현안을 풀어나는 시기이자, 핵심가치인 사람·생태·문화의 토대를 마련한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한 뒤 "이를 바탕으로 가장 인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7대 핵심프로젝트와 사람의 도시 역점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람·문화가 숨쉬도록”

김승수 전주시장, 민선6기 후반기 전주시정 방향 밝혀

“핸드메이드 시티 조성·글로벌 문화특별시 도약  
혁신도시 지역인재 35%이상 채용 등 추진할 것”

김승수 전주시장이 민선6기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전주시를 사람, 생태, 문화와 따뜻한 일자리가 있는 가장 인간적인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관련기사 16면)  
김 시장은 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6기 전주시의 지난 2년은 오랫동안 묵은 지역현안을 풀어나는 시기이자, 핵심가치인 사람·생태·문화의 토대를 마련한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한 뒤 “전주시가 가장 인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7대 핵심프로젝트와 사람의 도시 역점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김 시장은 매년 과업이 반복된 시내버스 문제 해결과 전주 교도소 이전, 전라감영 복원, 선미촌 문화재생 등의 묵은 현안들을 정상궤도에 올려놓았다고 돌아봤다.

특히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과 효성부도임대아파트 입주민 주거불안 해소 등 사람을 우선하는 복지도시 조성, 문화가 꽃피는 도시로 한발 더 다가서고, 2017 U-20월드컵 개최도시·개막전 유치와 국제슬로시티 확대 재인증 등 세계적인 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전주시의 이 같은 노력은 지역문화지수 조사 전국 1위, 한국 매니페스트 실천본부 공약평가 최우수, 2015년도 지방규제개혁 평가 우수지자체 선정,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전국 4위 등 우수한 성과를 올렸다.  
김 시장은 민선 6기 후반기 7대 핵심프로젝트로 ‘문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도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2개 분야를 제시하며, 민선6기 후반기의 성장엔진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고 밝혔다.  
문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 분야는 ▲독창적 문화예술도시 전주형 핸드메이드 시티 조성 ▲제2의 한옥마을, 미래유산 프로젝트 추진 ▲글로벌 문화특별시로 도약에 중점을 맞추고 있다.  
도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분야의 경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35%이상 법제화 ▲기업기(氣)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 ▲로컬 커뮤니티 플랫폼 구축 ▲금융창조 프로젝트 추진 등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가 가진 힘, 전주시민의 자력을 바탕으로 민선6기 후반기 전주시정은 7대 프로젝트와 사람의 도시 역점사업을 추진해 전주를 사람, 생태, 문화와 따뜻한 일자리가 있는 가장 인간적인 도시, 사람냄새 나는 따뜻한 도시로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재 기자

### ▶ 매일 INDEX

4면 1인가구 증가 따른 대책 절실

## 우리의 전통 소리 ‘판소리’ 세상 모든 소리의 중심으로

15th  
2016 전주세계소리축제  
2016. 9. 29(목)~10. 3(일)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의 ‘2016 전주세계소리축제 프로그램 발표회 및 쇼케이스’가 6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에서 열렸다.  
올해로 15회를 맞는 소리축제의 주제는 ‘세상의 모든 소리’로, 이는 판소리가 세계 음악의 중심에서 전 세계의 음악과 어떻게 하모니를 이루고 리드해 나아가는지 그 가능성을 열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날 소리축제조직위는 축제 방향과 주요 프로그램 등의 구성안을 발표했다.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는 6일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개분야 160여회 공연으로 구성된 ‘2016 전주세계소리축제’의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사진은 박재천 집행위원장이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 명창들의 연기력 확대 현대적인 무대 마련

### 소리프론티어 수상팀 국내외 무대 진출 기회

### 15개국 전통음악 참여 초대형 다국적 공연 ‘주목’

### 업 확장

2014년 한국과 폴란드 수교 25주년을 기념하며 시작된 소리축제 기획공연 ‘한-폴 프로젝트 쇼팽&아리랑’을 4년 연속 기획으로 확대, 지속시켜 지역 예술가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대하고 한국 음악의 확장을 도모한다.  
젊은 아티스트들을 위한 창조적이고 실험적인 장, 경연 프로그램인 ‘소리프론티어’ 수상팀에게는 국내외 무대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올해는 대만 국립전통예술중심에서 주최하는 골든벨로디 콘서트, 네덜란드 아메르스포르트 재즈&월드뮤지 페스티벌과 인디메카 흥대 벨로주 무대에 설 수 있는 특전을 준다.

### ▲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

‘Sari from the World’를 주제로 한 개막공연은 판소리를 중심으로 한 한국전통음악과 세계의 다양한 민족음악을 글로벌 연합오케스트라로 구성된 무대이다. 이는 한국, 폴란드, 중국 등 15개국 전통음악이 참여하는 초대형 다국적 공연으로 모든 연주팀이 동시에 한 무대에 올라 각 나라의 개별음악과 컬래버레이션을 넘나들며 마치 하나의 거대한 변주곡을 연주하듯 완성된다.  
‘비트 인스퍼레이션’을 주제로 한 폐막공연은 지난해 폐막공연 ‘농악 Big Party’를 리메이크한 무대로 전국의 타악 연주자들의 절묘한 컬래버레이션이 펼쳐진다.

이외에도 소리축제는 우리 전통음악은 물론 아제르바이잔의 정통 보컬 ‘무감’에서부터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아카펠라까지 세계의 다양한 소리와 음악을 만나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30개국 6개 분야 160여회 공연이 진행되는 2016 전주세계소리축제는 오는 9월 29일~10월 3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전북도 14개 시군에서 펼쳐진다.  
/정해은 기자

### ▲ 해외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 작

자연의 빛 생명의 빛 미래의 빛

제20회 **무주 반딧불축제**  
The 20th Muju Firefly Festival

2016. 8. 27(토)~9. 4(일)  
무주군일원 남대천, 반디랜드, 반딧골 전통공예문화촌 등

www.Firefly.or.kr

- 주최 무주군
- 주관 사)무주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
- 주소 전북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346
- 문의 063)320-5003-17

2017 무주 세계태권도 선수권 대회  
2017 Muju WTF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9월 22일 - 6월 30일)